

# 위령의 날

(둘째미사) 11월 2일

시편 116(114-115).5-6 10-11 15와 16ㄱ-ㄴ= (© 9)

손상오 신부 작곡

(후렴)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 가리 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 서 걸으 리 다

1. 주님은 너그럽고 의로우신	분	우리 하느님은	자비를 베푸시	네
2. "나 참으로 비참하구나." 되뇌면서	도	나는	믿었	네
3.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	이	당신 눈에	참으로 소중하	네

주님은 작은 이들을 지키시는 분	가 없는 나를	구해주셨	네
문득 나는 말하였네	사람은 모두	거짓말쟁	이
아, 주님, 저는 당신의 종	당신이 제 사슬을	풀어 주셨나	다

D.C.